

---

---

#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

---

정진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

머리말

I. 자료소개

II. 해방 전후 어민의 생활풍습과 노동생활

1. 생활풍습 : 미신, 속신, 금기

2. 노동조직과 노동생활

III. 사회주의 어업조직의 등장과 증산투쟁

1. 국영기업소 및 수산합작사의 설립

2. 증산투쟁의 한계와 어로작풍에 대한 문제제기

IV. 혁명적 주체와 모범의 창출

1. 청년층의 전진 배치를 통한 세대교체

2. '여성호'의 등장과 신어업문화의 조성

맺음말

---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09-361-A00008).

● 투고일: 2015. 5. 10.    ● 심사일: 2015. 5. 27.    ● 게재확정일: 2015. 6. 19.

## 요약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의 중요한 대상이었던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1945~60년 획기적인 변화과정을 거쳤고, 농민과 어민들의 생활방식도 크게 변모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는 단지 북한을 인민민주주의체제 및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는 과정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인간형을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6.25전쟁 전 북한은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인상공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였고, 어업분야는 중소어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당시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북한정권이 추진하였던 수산업 정책은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어민들의 과학적 인식의 토대 아래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국영기업소와 수산합작사를 활성화하여 어민들이 국영 및 협동조합 조직의 우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주의 협동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전쟁 이후 사회주의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은 일천한 생산력 수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북한은 생산력에 기반한 생산관계의 변화라는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고, 생산관계의 변화를 통해 생산력을 추동한다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길을 창안하고 사회주의 협동화를 급속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주체의 각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주체의 준비정도가 미약한 곳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었다. 특히 공동노동과 적색조합운동의 경험이 없었던 수산업 분야에서는 주체의 각성을 통한 생산력 증진이라는 방안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김일성은 1957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체양상을 보이고

##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수산업 분야를 지적하고,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도를 강화하였다. 그 방향은 ‘새세대공산주의자’인 청년층의 전진배치를 통한 세대교체, 여성들의 투입을 통해 신어업문화를 조성하는 급속한 전환의 방식이었다.

이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과 강력한 지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산업 분야의 사회주의 협동화와 사회주의 인간형의 창출이 쉽게 달성될 수 없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동시에, 사회경제적인 조건보다 정치적 지도와 사상개조를 우선시하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어업분야에 관철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주제어 : 북한, 사회주의, 수산업, 어민, 국영기업소, 수산합작사, 인민  
민주주의 개혁, 사회주의 협동화, 우리식 사회주의

## 머리말

일제 시기 어민들은 일제와 선주에게 예속된 존재였고, 이들의 의식은 봉건적인 풍습과 미신, 속신에 젖어 있었다. 어민은 농업조차 영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였고, 바다와 싸워야 하는 거친 직업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존재였다. 북한의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전후 사회주의 협동화는 이러한 북한 어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일제 및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어장과 선박은 국가 소유가 되었고, 대다수의 어민들은 일제와 선주의 예속에서 벗어나 국영기업소와 수산합작사, 수산협동조합에 소속되었으며 사회주의 인민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받았다.

그동안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에 대해서는 주로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민들은 한말부터 반봉건적인 소작관계를 극복하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왔고, 1) 일제강점기 농민들은 일제와 지주의 수탈에 맞서 각 지역에서 농민조합을 결성하고, 반봉건적인 소작관계와 소작관행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2)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는 토지문제 해결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농민적 토지소유를 실현한 결과로 평가되었다. 3) 또한

- 
- 1)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들은 “토지는 농민에게 평균으로 분작할 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다(배항섭, 1994, 「1894年 동학농민전쟁에 나타난 토지개혁 구상; ‘평균분작’ 문제를 중심으로」, 『사총』 제43권).
  - 2) 박천우, 1984, 「한말·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압태도 문서가의 지주로의 성장과 그 변동」,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준식, 1993, 『농촌사회변동과 농민운동』, 민영사; 지수걸, 1993,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참조.
  - 3) 이주철, 1994, 「북한 토지개혁의 추진주체: 소련주도설에 대한 비판」, 『한국사학보』 창간호, 194쪽.

북한의 급속한 사회주의 농업협동화는 6.25전쟁으로 생산기반을 상실한 빈농과 소농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sup>4)</sup> 최근에는 농업협동화 사례집과 농업협동화를 주제로 한 소설을 통해 사회주의 농업협동화를 둘러싼 농민들의 저항과 갈등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등장함으로써 북한의 농업협동화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돕고 있다.<sup>5)</sup>

반면에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의 중요한 대상이었던 수산업 부문에 대한 연구는 극히 영성한 실정이다. 북한의 수산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개략적인 실태 분석,<sup>6)</sup> ‘천리마운동’ 시기 어로 관련 노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당시의 수산업 실상에 접근한 연구<sup>7)</sup>, 북한의 기업가·상인층에 대한 정책을 언급하는 가운데 수산업이 부분적으로 언급된 경우<sup>8)</sup>를 제외하면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는 북한의 수산업과 어민

- 
- 4) 이주철, 1995, 「토지개혁 이후 북한 농촌사회의 변화 : 1946~1948년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16호; 박명림, 1997, 「북한혁명의 성격 : 반정복과 반혁명-북한토지개혁의 과정·내용·의미의 분석」, 『아세아연구』 통권 97호; 김성보, 2000,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 5) 김재용, 1990, 「북한의 토지개혁과 그 소설적 형상화」, 『실천문학』 통권 17호, 1990; 장미성, 1997, 「농업협동화 시기 농민의 일상과 내면 연구」, 『학림』 제30집; 홍혜미, 2005, 「전후 북한 농업협동화의 문학적 수용 : 리근영의 <첫수확>을 중심으로」, 『배달말』 제36권; 김영희, 2007, 「북한의 농업협동화운동과 그 문학적 수용-천세봉의 장편소설 <식개울의 새봄>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4호; 김성보, 2008, 「전쟁과 농업협동화로 인한 북한 농민생활의 변화」, 『동방학지』 제143집; 이만영, 2014, 「북한 토지제도의 변화와 문학적 형상화의 변천 : 토지개혁에서 농업협동화로 의 제도적 변이와 그에 대한 문학적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42권 2호.
  - 6) 김성호, 1992, 『통합대비 농림수산부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북한의 농림수산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봉, 1993, 「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남북 수산협력 방안」, 『농촌경제』 제16권 4호; 김운근·서승진·김정봉, 1994, 『북한의 임업과 수산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7) 배인교, 2013, 「어로 관련 북한 ‘민요풍 노래’의 음악적 검토」, 『한국민요학』 제38집, 2013; 배인교, 2014, 「북한의 천리마운동시기 음악적 감상-노래집 《풍어기 휘날리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45집.
  - 8) 김재용, 2014,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1945~1950)』,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43~144쪽.

에 대한 자료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 연구의 초점이 농업 분야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 글의 목표는 우선 수산업 부문의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 천리마운동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의 사회주의 과정에서 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것을 해결해가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조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가 수산업에 관철되는 양상을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 어민의 생활풍습 및 노동관행과 그것을 개조하려는 북한당국 간의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민의 일상과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과 정책지도의 방향을 살핌으로써 우리는 북한 정권이 추구했던 인간 개조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해방 전후 어민들의 생활풍습과 노동생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어민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검토하는 한편,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장려되고 재평가되어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개혁 과정에 흡수되는 것과 미신과 속신으로 지목되어 배제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사회주의 노동조직의 등장과 본격적인 전후 증산투쟁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협동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산업 분야의 문제점과 그것을 보는 북한 정권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수산업 분야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북한 정권의 해법과 정책적 조치를 살펴볼 것이다. 북한 정권의 정책적 조치와 지도과정에 천착함으로써 북한의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뿌리 깊이 남아 있던 어

민들의 생활풍습과 전통적인 어로관행이 어떠한 정책적 개입을 거쳐 변모해 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I. 자료소개

이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자는 1950~60년대 북한 사회과학원이 진행한 민속조사 자료 중 지역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북한 사회과학원에서는 1949년 5월부터 1968년 5월까지 광범위한 민속조사를 실시하여 해방 전후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및 일상생활 풍습, 어로·수렵 및 천생산 관행, 관혼상제와 민간극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민속조사 자료는 크게 무속자료와 지역조사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무속자료에는 1955년 김일출 등의 지도 아래 무당 최명옥 등을 동원하여 진행한 평양지방의 잔상굿 열두거리와 다리굿에 대한 사진과 녹음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조사 자료에는 1949년~1968년에 걸쳐 북한 전역에서 조사, 수집한 의식주 및 일상생활 풍습, 어로·수렵·천생산 및 광업의 생산풍습과 노동관행, 관혼상제와 재인놀이, 탈놀이, 꼭두각시놀이 등 민간극에 대한 상세한 조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sup>9)</sup>

민속조사는 북한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소속 전장석, 황철산 등의 주도 아래 개성, 청진 등 지역 역사박물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

---

9) 민속조사 자료 중 상장례 자료의 해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군, 2014, 「북한지역의 상장례(喪葬禮) 변화 연구-1960년대 민속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은지논총』 제 39집을, 일상생활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는 한성훈, 2014, 「북한 사회주의 이행의 근대성과 일상의 변동-1960년대 지역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7권 3호를 참조할 것.

되었다. 조사는 지역 역사박물관 소속의 조사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가지고 마을 현지를 방문하여 담화자와 문답을 나눈 후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보고서에는 각 지역별로 조사내용을 상술하였고, 말미에는 조사날짜, 조사지역, 담화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직업을 명시하였다.

이 민속조사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때 조사된 내용은 『민속학 논문집』, 『조선탈놀이 연구』, 『조선의 민족전통 1~7』 등 이후 발간된 모든 북한 민속학 자료의 원천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학자들은 민속조사 자료와 그간의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2006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풍습』 총서 25권<sup>10)</sup>으로 출판하였다.

민속조사 내용 중 어로 관행 및 일상생활 풍습 조사에는 전통적인 어민 노동조직의 조직 목적, 조직 구성과 규율, 운영방식뿐 아니라 생활풍습과 제사·미신·속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어로 관련 민속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어민의 생활풍습과 노동관행을 재구성할 것이다.

그 외에도 필자는 『김일성 저작집』, 『조선수산사 2 : 현대편-1』, 『북한의 수산산업 분야 사업총화집』과 『조선문학』에 수록된 수산 관련 작품을 주 자료로 활용하였다. 『김일성 저작집』과 『조선수산사 2: 현대편-1』, 『북한의 수산산업 분야 사업총화집』을 통해서는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

---

10) 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권 민족옷차림과 몸단장, 제2권 옷감과 옷짓기, 옷손질, 제3권 무대복과 치레거리, 관복, 제4권 민족음식과 식생활, 제5·6권 지방의 특색있는 토배기음식(1)·(2), 제7권 고전에 반영된 민족음식과 그 제법, 제8권 살림집의 유형과 집짓기풍습, 제9권 살림집의 리용관습, 제10권 가족생활, 제11권 가정의례, 제12·13권 로동생활(1)·(2), 제14권 민속명절과 12달 풍습, 제15권 무술과 체력단련놀이, 제16권 지능겨루기와 유희놀이, 제17·18권 민속음악(1)·(2), 제19·20권 민속무용(1)·(2), 제21권 민간극과 교예, 제22·23권 민속설화(1)·(2), 제24권 민속공예, 제25권 민속용어집.



회주의 협동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 방향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문학』에 수록된 오체르크, 수필, 소설 등 수산 관련 문학작품을 통해서 수산업 협동화를 둘러싼 어민들과 정책 담당자, 어민들 사이의 갈등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 II. 해방 전후 어민의 생활풍습과 노동생활

### 1. 생활풍습 : 미신, 속신, 금기

어업은 작업의 특성상 자연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직종이었다. 현대 과학의 힘을 통해 자연을 극복할 수 없었던 어민들은 천신과 용신, 수신 등 하늘과 바다의 절대적인 존재를 신앙하고, 그들에게 제사지냄으로써 자신들의 어로활동이 보호받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속신과 금기 등에 의존하였다.

어민들의 안전과 어촌 마을의 안녕은 배의 안전과 물고기 잡이의 성과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에 어민들은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배를 건조할 때부터 출어해서 마을로 돌아올 때까지 다양한 제사를 지냈다.<sup>11)</sup> 제사 때는 밥, 고기, 떡 등이 차려졌고, 무당들이

11) 「함경북도 청진시, 라진군」, 1951년 6월 24일 조사(조선사회과학원, 1949~1968, 『민속조사 자료』, 미간행, 이하 민속조사 자료는 출전 생략); 「평안북도 정주군 애도」, 1962년 9월 25~29일 조사; 「황해남도 송화리 초도」, 1966년 4월 7일 조사; 「황해남도 배천군 강호리」, 1966년 4월 27일 조사; 「함경남도 흥원군」, 1966년 5월 25일 조사; 「압록강 어로」, 1966년 9월 13일 조사; 「장자강 어로」, 1962년 9월 19~21일 조사; 조선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2006,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초빙되어 수신과 용신에게 복을 빌며 기도하는 말이나 행위인 ‘비난수’를 하기도 하였다.

배를 건조했을 때는 ‘신축제’를 지냈고, 배를 띄울 때는 ‘진수식’을 하였으며, 매해 어기가 돌아올 때마다 성황당이나 바닷가 또는 강가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계절제’를 지냈다. 이러한 행위는 물에서 뿐만 아니라 배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배의 뒷부분에 귀신을 그려놓거나 신물을 놓고는 물고기를 잡을 때나 풍랑을 만났을 때 수시로 풍어와 풍랑 극복을 기원하였다.<sup>12)</sup>

한편, 어민들의 금기는 주로 여성에 대한 것이었다. 식전에 여성을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하였고,<sup>13)</sup> 여성이 물둥이를 이고 가는 것만 보아도 불길하다고 여겼다.<sup>14)</sup> 여성은 정초에 나다녀서는 안 되었고, 그물을 타넘어서도 안 되었으며,<sup>15)</sup> 절대 배에 탈 수도 없었다.<sup>16)</sup> 여성이 불안한 말을 하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속설까지 있을 정도였다.<sup>17)</sup> 또한 그물이 걸리거나 노가 부러지거나 혹은 낚싯줄이 낚싯대에 가로타는 것을 불길함의 전조로 여겼고,<sup>18)</sup> 부정 탄다고 상갓집에 가지 않았으며 부정한 것을 본 사람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다.<sup>19)</sup>

북한 민속조사에 의하면 어민들은 위험하고 변화무쌍한 날씨의 바다에서 온갖 역경을 헤치며 활동하므로 정착해서 살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

풍습 13-로동생활 2』, 사회과학출판사, 57쪽 참조.

12) 「함경북도 어랑군」 1963년 7월 5~7일 조사; 위의 책, 57쪽.

13) 「평안북도 정주군 애도」, 1962년 9월 25일 조사; 「압록강 어로」, 1966년 9월 13일 조사; 「함경북도 어랑군」 1963년 7월 5~7일 조사

14) 「대동강 어로」, 1963년 9월 14~18일 조사.

15) 「평안북도 정주군 애도」, 1962년 9월 25일 조사.

16) 위와 같음; 「함경북도 어랑군」, 1963년 7월 5~7일 조사; 「강원도 고성군」, 1966년 9월 7~9일 조사.

17) 「압록강 어로」, 1966년 9월 13일 조사.

18) 위와 같음; 「함경북도 어랑군」, 1963년 7월 5~7일 조사.

19) 「평안북도 정주군 애도」, 1962년 9월 26일 조사.

가진 농민들과 비교할 때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며 단결심이 강한 성격을 가진 존재였다. 그러나 억압과 착취, 가난으로 인해 배우지 못하였으므로 기술을 연마하고 선진도구로 어업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바다신에게 치성을 하여” 고기를 많이 잡으려는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고, 고기를 많이 잡아 여유만 생기면 돈을 탕진하는 투기적인 존재였다. 게다가 논밭을 사서 천대받는 어민의 신분에서 벗어나 농민이 되고 싶어 하는,<sup>20)</sup> 계급적 자각과 어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부족한 존재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후 어업 분야의 개혁은 어민들의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바다와 맞서 싸워온 진취적인 성격을 북돋우며, 미신적이고 투기적인 생활작풍을 교정하여 반봉건적, 사회주의적인 인민으로서의 생활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데 방점이 두어질 것이었다. 실제로 어민들의 생활은 해방 후 급속히 변모하고 있었다. 해방 후 미신타파운동이 벌어지면서 무당, 복술, 기우제 같은 풍습이 사라지고 있었다.<sup>21)</sup>

1946년 12월부터 전개된 북한의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봉건적인 유습과 미신 타파,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연유한 낡은 사상과 관습을 극복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sup>22)</sup> 미신 타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북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원들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원들의 활동 및 야학과 성인학교에서의 교육이었다. 야학과 성인학교에서는 문맹을 퇴치하고 북한 정권의 정책을 선전하였다. 민청원들과 여맹원들은 노인들을 설득하여 여성들이 야학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신 타파에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원구성, 대감, 성주, 지은, 도당나무, 국사당 등 미신적인 활동 도구와 상징물들이 불살라졌고, 북한지역의 미신은 1948년

20) 「함경북도 청진시, 라진군」, 1951년 6월 24일 조사; 「함경남도 흥원군」, 1966년 5월 23일 조사.

21) 「평안북도 선천군 효자리」, 1961년 9월 3일 조사.

22)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 관해서는 김재웅, 2005, 「북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 현실』 제56호 참조.

을 전후하여 거의 사라졌다.<sup>23)</sup>

1951년 함경북도 청진시와 라진군 어로풍습 조사에서 어민들은 “반계 반봉건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미신을 타파하고, 선진기술을 연마하며 도구를 개혁해서 미신적인 행사들을 퇴치하고 진취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바탕으로 하고 민주과업 실천에 매진하고 있다”고 구술하였다.<sup>24)</sup> 미신, 속신, 금기가 사라진 어촌에서 이제 개혁의 초점이 될 문제는 어민들을 사회주의적 인민으로 개조시키는 문제였다.

## 2. 노동조직과 노동생활

일반적으로는 배를 가진 선주가 별도로 있었고, 배를 타는 배꾼은 사궁, 화장, 동사를 기본구성으로 하여 사궁(살주), 이물사궁(상동무), 화장, 원장, 령제(영자), 동사(동무, 립동무) 등으로 구성되었다.<sup>25)</sup> 선주는 배 임자로서 배에 같이 타서 어장의 선택과 이동을 지시하거나,<sup>26)</sup> 배에 타지 않고 물주로서의 역할만 하기도 하였다. 사궁(살주)은 선장으로서 배길을 보고 키를 조절하며, 어로작업을 지휘하는 총책임자였다. 이물사궁(상동

---

23)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1968년 5월 8일 조사; 「강원도 룡림군 신창리 1반」, 1968년 조사; 「강원도 룡림군 룡문리」, 1968년 조사; 「강원도 룡림군 남흥리」, 1968년 조사; 「강원도 시중군 풍릉리」, 1967년 조사. 두만강 시대에는 1950년까지 간혹 부락제가 남아있는 곳이 있었으나, 닭이나 잡는 정도로 축소되었다고 한다(「함경남도 두만강시대」, 1950년 4월 조사).

24) 「함경북도 청진시, 라진군」, 1951년 6월 24일 조사.

25) 민속조사 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별 배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평안북도 철산군 장송구, 리화리-사궁, 이물사궁, 화장, 원장, 녕제; 평안북도 정주군 애도-선주, 사궁, 화장, 립동무; 황해남도 송화군 초도-배 임자, 사궁, 화장, 동사; 황해남도 룡연군 구미포-사궁, 화장, 선원; 황해남도 해주시 월성포-배 임자, 사궁, 영자, 화장, 동사.

26) 조기잡이를 하는 나그네 증선이나 망선 등 큰 배일 경우, 배 임자도 배를 탔다고 한다(「황해남도 해주시 월성포」, 1966년 4월 21일; 「함경남도 흥원군」, 1966년 5월 23일 조사).

무)은 부선장으로서는 배의 선두인 이물에서 갖은 일을 다 했다. 화장은 밥 짓는 사람이었다. 인원이 많을 때는 세끼 밥을 짓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20~25세의 총각을 쓰지만, 인원이 적을 때는 나이 어린 사람이나 노인을 배치하였다. 령제(영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 깃발을 띄우거나 걷고, 배의 전방을 살펴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과 더불어 도구 정리도 하는 창고장 격이었다. 동사(동무, 립동무)는 특별한 기술 없이 성실하고 힘만 세면 되었다. 선주와 사궁, 동사의 관계는 봉건적이고 위계적이었으며,<sup>27)</sup> 어민들에게는 특별한 공동노동조직이 없었다.<sup>28)</sup>

임금 지불은 일정액을 선불로 미리 받는 선용<sup>29)</sup>과 예상 수익의 절반을 미리 선불로 받는 골장갈림, 그리고 후불 정산인 짝갈림의 방식이 있었다. 골장갈림으로 배꾼이 선불을 받는 경우에는 파송(물고기를 다 잡고 회계를 보는 것)할 때 일체의 비용을 공제하고 만일 남는 것이 있으면 선주와 절반씩 더 나누고, 선불로 받은 임금보다 수익이 적을 경우에는 다음해 다시 선주에게 매이는 몸이 되었다.<sup>30)</sup> 짝갈림은 선불 지급 없이 파송 후 일체의 비용을 제하고 배 임자와 배꾼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이었다.<sup>31)</sup> 이때 사궁에게는 1할 또는 동사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 임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sup>32)</sup> 해방을 전후해서는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게 월급제로 동사를 고용하는 형태도 생겨났다.<sup>33)</sup>

27) 조선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2006,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풍습 13-로동생활 2』, 사회과학출판사, 5쪽 참조.

28) 「황해남도 초도」, 1955년 4월 7일~4월 24일 조사.

29) 「평안북도 정주군 예도」, 1962년 9월 25일 조사; 「황해남도 연안군 화양리」, 1966년 4월 10일 조사; 「함경남도 흥원군」, 1966년 5월 23일 조사.

30) 「평안북도 룡천군 진흥리」, 1966년 7월 25일 조사; 「황해남도 룡연군 구미포」, 1966년 4월 25일 조사; 「황해남도 연안군 화양리」, 1966년 4월 10일 조사.

31) 「원산지방」, 위의 책.

32) 「평안북도 철산군 장송구, 리하리」, 1966년 7월 23일 조사; 「평안북도 정주군 예도」, 1962년 9월 25일 조사.

33) 평안북도 룡천군 진흥리에서는 전자를 깃동무, 월급제를 싹(삭)동무라고 하였다

어민들은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노동했으나 선주의 봉건적·자본주의적 속박에 매인 몸이었고, 노동의 고단함을 해소하는 방식은 도박과 주색잡기뿐이었다. 이는 생명을 거는 위험하고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늘 불안정한 처지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 만선일 때는 수입에 여유가 있었지만, 어획량이 많지 않을 때는 선주에게 노예처럼 매인 몸이 되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어민들로 하여금 투기적이며 향락적인 생활문화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배 안에서도 나이와 역할에 따라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고, 배 단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동사들 사이에 조직이 형성되기도 어려웠다. 제주의 해녀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해녀회를 제외하면<sup>34)</sup> 어로작업을 하는 어민들 속에는 농민들의 두레와 황두 같은 공동노동조직이나 농민회, 조선농민총연맹, 적색농민조합과 같은 계급적 연대조직이 없었다.<sup>35)</sup>

어민들의 조직으로는 단지 관제조직인 어업조합이 있을 뿐이었다. 일제는 1911년 「어업령」을 공포하고, 1912년 어업조합과 수산조합 규칙을 시행하여 어업자(어업주와 어민)들을 강제로 어업조합에 가입시켰다. 어업조합은 어업권 취득, 수산물 위탁 판매, 어업용구 공동구입, 공동설비 시설, 대부 등 협동조합의 외피를 쓰고 있었지만, 관료와 어업권자들이 임원을 맡고 일본의 어업용 공산품을 중개하며 고리로 대부활동을 하는 등 어민들을 일제의 통치기구와 자본에 종속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sup>36)</sup> 어민들은 한편으로는 선주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어업조합에

---

(『평안북도 룡천군 진흥리』, 1966년 7월 25일 조사).

34) 박찬식, 2004,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19호; 김은실, 2010, 「제주 해녀의 주체성과 제주 해녀 항일운동」, 『국가와 정치』 제16집; 장혜련, 2011, 「해녀 항일운동」, 『제주여성사 2-일제강점기』, 제주발전연구원.

35) 「황해남도 초도」, 1955년 4월 7일~4월 24일 조사.

36) 여박동, 1993, 「일제시대 어업조합의 성립과 변천-거문도 어업조합을 중심으로」, 『일본학연보』 제5집; 최재성, 2012, 「1930~40년대 어업조합의 활동-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108호 참조.

이중적으로 종속되었다.

북한정권은 어민을 배와 어구를 가진 중소상공업자 혹은 소상품생산자로 인식하였다.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 북한정권이 주력한 경제정책은 국영에 중심을 두면서도 자본주의 경제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sup>37)</sup> 정책 담당자들은 어민들이 일제와 어업조합의 착취에서 벗어나 해방된 조국의 인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용감하고 진취적인 어민의 특성을 살려 생산활동에 매진한다면 수산업 분야의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 소상품생산과 중소상공업을 장려하는 북한정권의 정책 속에서 수산업 분야는 기존 생산체제의 큰 변화 없이 발전하고 있었다.

### III. 사회주의 어업조직의 등장과 증산투쟁

#### 1. 국영기업소 및 수산합작사의 설립

해방 후 북한에는 개인 어업자들의 조직인 수산조합이 어업조합을 대신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되었고, 1946년 말에는 각 지역 수산조합의 중앙조직으로서 북조선수산조합총연맹이 발족하였다.<sup>38)</sup> 수산조합은 다수의 적산과 어장을 확보하고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보장해주는 합법적인

37) 예대열, 『해방 이후 북한의 노동조합 성격논쟁과 노동정책 특질』, 『역사와 현실』 제70호, 2008, 212~216쪽.

38) 수산조합은 어민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어민들에게 고깃배와 어구, 그물 등을 대여해주거나 보수해주고, 판매·유통망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였다(박근순, 1991, 『조선수산사 2 : 현대편-1』, 공업종합출판사, 46쪽).

민간 어업단체로서 3.7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어민들은 수산 조합의 조합원으로 망라되었다.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에 대한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고, 공장, 기업소, 광산, 운수, 체신, 은행, 상업기관, 발전소, 문화시설 등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였다. 그 결과 전체 산업시설의 90% 이상인 1,034개의 산업시설이 몰수되었다. 그 규모는 공업 생산 능력의 90%, 공업 총생산액의 72.4%에 달하는 것이었다.<sup>39)</sup> 그러나 대규모 선박과 수산업 시설이 많지 않고, 중소기업 어업자들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었던 수산업 분야의 국유화는 타 산업에 비하여 미미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이었다.<sup>40)</sup>

1947년 3월 11일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선 수산기업소 규정」을 채택하여 수산기업소를 통합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영수산기업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8~9월에는 수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 분야 간부들에게 수산합작사를 조직할 것을 독려하기 시작하였다.<sup>41)</sup> 수산합작사는 배와 어구, 그물 등 생산도구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가운데 공동노동 등을 통해 협동적인 생산을 하는 점진적인 협동화의 방향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업 분야는 공동노동의 전통이 없었고, 혁명적 어민조합 활동의 경험도 부재했다. 곧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경제형태를 조직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고, 개인경리가 지배적인 분야였다.<sup>42)</sup> 어업

39) 조선중앙통신사 편, 1955, 『해방 10년 일지(1945~1955)』, 62쪽.

40) 박근순, 앞의 책, 34쪽.

41) 위의 책, 35~47쪽, 김일성, 1979, 「수산업을 새로운 토대 위에서 발전시킬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1948.1~1948.12)』, 조선로동당출판사 참조. 1949년 현재 농림성 수산관리국에서는 15개의 수산사업소를 각 어장 중심지에 설치하여 국영수산업을 발전시켰다. 국영수산업의 신장세는 1947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49년에는 어로 432.9, 가공 269.1로 급증하였다(국토통일원 편, 『북한의 수산업분야 사업총화집(1949~1970)』, 1974, 6쪽.



분야의 사회주의 협동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위적인 지도와 개입이 필요했지만,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어민들의 준비 정도가 낮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협동조합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수산합작사를 독려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도 합작사가 “내 것, 네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부정”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재산을 공동으로 내서 함께 일”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선전할 것을 각급 행정조직에 지시하였다. 김일성도 수산합작사를 추동하는 데 있어 자원성의 원칙을 강조하였다.<sup>43)</sup> 그러나 어민들이 집단경리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협동화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단경리가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수산합작사의 생산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 12월 「지하자원, 산업지역 및 수역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제31호를 공포하여 어로활동의 기반이 되는 하천과 어장을 국유화하였고, 북조선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개인만 어업 경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sup>44)</sup> 이 조치는 조업의 기반이 되는 하천과 어장을 국유화함으로써 국유화의 효과가 미미한 어업 분야에서 국유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산업 경영을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수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도력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수산조합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던 국영기업소와 수산합작사에게 좋은 어장과 유리한 작업 조건을 마련해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였다.

---

42) ‘경리’는 일을 경영하고 관리한다는 뜻의 북한식 경제용어이다.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경영의 방식에 따라 개인경리와 집단경리로 나뉜다. 개인경리에는 사적경리와 소상공경리, 집단경리에는 국영경리와 협동경리가 있다.

43) 박근순, 앞의 책, 48~52쪽.

44) 위의 책, 34쪽.

수산합작사를 조직하는 과정은 또한 수산조합과 개인 상공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조합을 해산하고 수산합작사를 조직하도록 유도하였다. 수산합작사를 조직한 어민들에게는 어장을 알선해주는 한편, 수산합작사를 국영 상점, 소비조합 상점과 직결시킴으로써 어민과 개인 상인의 연결망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1949년 말에는 어민의 40%가 수산합작사 조직에 망라되었다.<sup>45)</sup> 그러나 이 시기는 어민들의 개인경리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정책적으로도 사적경리와 소상공경리를 인정하는 인민민주주의 단계였기 때문에<sup>46)</sup> 건설된 수산합작사는 어민들이 자기의 배와 어구, 그물 등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에만 공동작업을 하는 낮은 단계의 협동조합 형태였다.

## 2. 증산투쟁의 한계와 어로작풍에 대한 문제제기

1950년 발생한 6.25전쟁은 수산물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선박이 파괴되었고, 출어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으며, 질병으로 인해 남성노동력이 극히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1953년에는 1949년 대비 생산량이 37% 수준으로 급감했다.<sup>47)</sup>

---

45) 위의 책, 46쪽.

46)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0)』, 363~371쪽; 김성보, 앞의 책, 209~217쪽 참조. 인민민주주의 단계의 국가를 북한은 ‘신민주주의’ 국가로 지칭하고,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도기 국가로 규정하였다. ‘신민주주의’ 경제는 다양한 경제요소가 공존하는 혼합경제이므로 국가경제 요소의 주도하에 협동조합 경제요소, 자본주의 경제요소, 소상공 경제요소의 네 범주가 공존하였다(김성보, 같은 책, 211~21쪽).

47) 박근순, 앞의 책, 285쪽.

전쟁으로 인해 경제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시장을 통해 성장한 부농, 중농 및 중소상공인들에 반해 단순재생산 기반 조차 잃고 몰락해가는 소빈농과 영세 어민들 사이의 계층분화에 대응하여 북한 정권은 인민민주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체제로 중대한 수정을 가하고, 사회의 전 분야에 협동화의 기치를 올려 전후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sup>48)</sup>

특히 수산업 분야의 증산은 부족한 식량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중시되었다. 단기간에 목축업을 발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삼면의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산업은 인민들에게 부식제공과 단백질 공급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었기 때문이었다.<sup>49)</sup> 수산업 분야에서도 전면적인 증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주의 협동조합을 광범위하게 조직할 것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은 1954년 3월 23일에는 농림부에 소속되어 있던 수산국을 폐지하고 수산정책을 지휘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수산성을 창설하였다. 1955년 2월 9일에는 수산성 내에 수산협동조합지도국을 신설하여 어업 분야의 사회주의 협동화를 총괄하게 하였다.<sup>50)</sup>

이러한 과정에서 수산합작사는 생산수단과 경영 및 노동력을 통합하고 노동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는 수산협동조합으로 재편성되었고, 수산협동조합은 1954년 165개, 1955년 170개로 증가하였다. 북한 정권은 1956년 말에는 개인 어민의 93.7%가 수산협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어촌경리협

48) 서동만, 앞의 책, 4장 전후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1953~1958); 김성보, 앞의 책, 4부 전쟁 이후의 농업정책의 전환 참조.

49) “물고기를 잡는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식물이 많으면 주식물을 적게 먹습니다. 그러므로 어획을 위한 투쟁은 식량을 획득하는 투쟁과 같습니다”(김일성, 1980, 『전후 인민경제복구3개년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함경북도 당단체들의 과업』, 『김일성 저작집 9(1954.7~1955.12)』, 조선로동당출판사).

50) 박근순, 앞의 책, 192쪽.

동화운동이 결정적으로 승리하였다고 자평하였다.<sup>51)</sup>

그러나 문제는 협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어로방식과 사업태도가 개인경리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전후복구사업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어로작풍은 첫째, 소극적인 사업 태도였다.<sup>52)</sup> 전쟁으로 인해 많은 어선들과 어구들이 파괴되었고, 어민들은 낙후한 어선과 어구에 대한 수리와 교체 없이 수산물 생산의 급격한 증산을 요구하는 당 간부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증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다음은 희곡 「성어기」에서 드러나는 어민들의 불만이다.

나두 배군이요. 배만 낚지 않았다면 나두 어느 놈한테두 지지 않는 고기잡이를 했을 거요. 명색이 나두 당원이란 말이요! (……) 전쟁 때 억지로 써먹던 배가 지금 어떻게 됐겠소? 그런데 벌써 전쟁이 끝난 지가 몇 해요? 그래도 내가 해이했다는 거요?<sup>53)</sup>

전쟁 후 북한은 낙후한 중화학공업, 전쟁기의 시설파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선박 건조와 기계설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은 소설 「영웅선장」에서 주인공 김룡철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다.

어구도 충분치 못했고 선원들의 작업 기술도 미약했었다. 그러나 그는 초조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생산계획을 실행하려면 출어회수와 기망회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도와 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타산했다 (……) “파도는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51) 위의 책, 248~249쪽, 256쪽 참조.

52) 김일성, 1980, 「전후인민경제복구3개년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함경북도 당단체들의 과업」, 『김일성 저작집 9(1954.7~1955.12)』, 조선로동당출판사.

53) 김주명, 1957, 「(희곡) 성어기」, 『조선문학』 1957년 3월호, 95쪽.

의집니다. 난관 앞에서 초조하지 않고 뚝고 나가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sup>54)</sup>

이렇게 북한 정권은 어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통해 증산과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는 경험주의와 보수주의였다. 오체르크 「풍랑을 뚫고」와 「젊은 어로원의 생각」에 나오는 인물들은 과학기술에 의거한 어로활동을 거부하고 경험주의와 보수주의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황룡하 선장은 누구보다도 바다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지난 시기에는 많은 고기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무에게 어떤 병집이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좋은 방법들이 제기되었을 때, 의례 그는 입버릇처럼 몇 십 년 동안을 바다에서 그런 기술과 방법을 몰랐어도 고기는 잡는다고 우깁니다 (……)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배들은 만선기를 휘날리며 돌아왔으나 63호선은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sup>55)</sup>

“자네는 그래서 늘 글렀어! 왜 새 일이라문 그렇게 반대부터 하구 나서나? (……) 자네 접때두 새로운 제대군인 동무가 기마기를 창안하겠다는 걸 들구 통바가지를 주지 않았나? 그게 이를 테면 방해란 말이야.”

“아따 그게 되겠다. 옛날엔 일하기 좋아서 그런 걸 안 만들었겠나? 안될 일이기에 못 헨 게지.”

“이 사람, 쏘련서 만든 별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세상이야! 우리의 힘으로 안 될 일이 뭐겠나? 그 머리를 제발 고치라구 (……) 그것두 하긴 사상의 병집이지.”<sup>56)</sup>

54) 채규철, 1956, 「(소설) 영웅선장」, 『조선문학』 1956년 4월호, 62~64쪽.

55) 박령보, 1958, 「(오체르크) 풍랑을 뚫고」, 『조선문학』 1958년 8월호, 81~82쪽.

56) 탁진, 1959, 「(오체르크) 젊은 어로원의 생각」, 『조선문학』 1959년 9월호, 101쪽.

일제강점기 이래로 어로활동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어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이들은 과거의 오랜 경험과 관습에 의존하여 어로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과학화는 사회주의적인 인간이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덕목이었지만, 어민들의 어로관행과 강고한 경험주의의 벽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셋째는 투기적 경향이었다. 증산은 출어 일수와 기망 일수에 직결되었기 때문에 어로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러나 어민들은 어로활동을 비정기적 노동, 계절적 노동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노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웠다.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는” 어로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sup>57)</sup> 어민을 일상적인 노동에 기반한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수산업은 어민들의 계급적 각성이 미미한 분야였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당과 근로단체 간부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어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초심자들이 배를 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어로활동에 경험이 있고 관록이 있는 벼사람이 아니라면 정확한 과학기술적 지도와 생활적 지도가 불가능하였다.

전후 수산업은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화학공업의 원료로서, 수출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다. 증산투쟁과 더불어 북한 정권은 어로활동에 소극적이고, 경험주의와 보수주의, 투기적 경향이 강한 어민들의 생활 작풍을 교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어민을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확보되기 어려운 어업의 특성상 어민들의 생활을 재조직하기란 쉽지 않았다. 소극적인 사업 태도는 영웅의 발굴로 어느 정도 극복 가능했지만, 경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정기적인 노동에 익숙한 어

57) 김일성, 1980,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김일성 저작집 10(1956.1~1956.12)』, 조선로동당출판사.

민들의 어로작풍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북한 정권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으로 어업 분야를 개조하고자 하였다.

#### IV. 혁명적 주체와 모범의 창출

##### 1. 청년층의 전진 배치를 통한 세대교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1956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였다.<sup>58)</sup> 이 방침에 의거하여 북한 정권은 1957년부터를 ‘사회주의 기초 건설 시기’로 설정하고 제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최대한의 증산을 통해 사회주의건설을 완성해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천리마운동’을 제창하였다.

1957년이 시작되자마자 산업 각 분야에서 ‘천리마운동’이 확산되면서 획기적인 증산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분야는 증산운동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 채 지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수산업 분야였다. 1957년 4월 18일~19일 양일간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수산업 분야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어로활동에서 중소어업, 심해어업, 계절어업을 비롯한 다양한 어로 방법을 대담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였다.<sup>59)</sup>

특히 회의에서는 전후복구사업에서 어민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5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1989, 『조선로동당력사 2』, 돌베개, 76~82쪽 참조.

59) 김일성, 1981, 「함경남도 당 단체들의 과업」, 『김일성 저작집 11(1957.1~1957.12)』, 조선로동당출판사; 박근순, 앞의 책, 257~267쪽.

되었던 소극적인 사업 태도, 경험주의와 보수주의, 투기적인 경향을 청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1956년 8월 중과사건과 관련하여 당과 근로단체 간부들의 소극적인 지도는 이제 반당·반혁명 중과분자들의 ‘의식적인 태공’으로 지목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어민들의 노동 관행과 어업 작풍, 간부들의 사업 작풍에 대한 문제제기 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래식 사업방법’과 ‘낡은 사상관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어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세대교체, 즉 ‘새세대공산주의자’의 육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였다.

전후복구사업까지는 북한 정권이 기성 어민들에 대한 사상지도를 통해 어민들의 어업 노동 관행을 개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면, ‘사회주의 대고조’를 표방한 후부터는 수산 설비와 기계를 통한 기계화·과학화와 더불어 청년층의 전진 배치를 통한 세대교체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수산 부문의 청년 기술인재 양성사업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김일성이 직접 나서서 청년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수산부문에는 젊은 기술자들이 적으며 따라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미약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수산부문에 청년들을 더 많이 들여보내며 그들을 고착시키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새것을 좋아하며 대담하게 새것을 받아들이며 보수주의와 락후한 것과의 투쟁에 앞장섭니다.”<sup>60)</sup>

김일성은 사회주의 조국의 개척자인 청년들이 수산 분야의 80~90%를 차지하여 수산 부문의 일대 개조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였

---

60) 김일성, 위의 글.



다. 김일성이 직접 청년들의 수산 부문 투신을 강조한 후, “청년들은 바다로!”라는 구호 아래 청년들이 대거 수산 분야에 자원하였다. 초고중 졸업생과 수산학교 졸업생 뿐 아니라 제대 군인, 다른 부문에서 일하던 청년들까지 일터를 수산부문으로 옮겼다. 그 결과 1956년 어로공 가운데 20.2%에 불과하던 청년의 비중이 1959년에는 52.5%, 1960년에는 68%로 급증하였다.<sup>61)</sup>

청년들의 활동에서는 특히 <민청호>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냈고, 북한 정권은 이를 적극 선전하였다.<sup>62)</sup> 황해남도 강령군 부포 수산사업소의 <민청호>는 고기잡이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을 강조한 1957년 조선로동당 4월 전원회의의 요구에 따라 어로활동의 혁신을 도모하였다고 홍보되었다. 조금사리 때 조기잡이에서 손을 떼던 관행을 극복하고, 조기들의 이동을 추적하면서 조금사리 때 어로활동을 전개하여 하루 8톤의 실적을 18톤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밀물과 썰물 각각 2회씩 하던 투망 회수도 각 3회씩으로 늘림으로써 증산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sup>63)</sup>

이러한 <민청호>의 성과는 작가들에 의해 “어민들의 낚은 인습을 혁명적으로 타파한 기적”<sup>64)</sup>으로 묘사되었고, 이는 다시 <민청호>의 모범을 따르자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인민경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작가들에게

61) 국토통일원 편, 앞의 책, 37쪽. 국영부분 어로공 중 청년의 비중도 1956년 50% 미만에서 1957년 71.2%로 증가하였다(고명인, 앞의 책, 30쪽).

62) 최윤, 1961, 『바다의 젊은 갈매기들』, 『철리마 시대 사람들 (4)』, 조선로동당출판사·민청출판사 참조. <민청호>는 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원들이 주도가 되어 조직한 어선이다. 민청은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되었다가 1951년 ‘남조선민주청년동맹’과 통합하여 ‘조선민주청년동맹’이 되었다. 그 후 1964년 5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으로 개칭되었으며, 1996년 1월 현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뀌었다. 민청은 만 14세부터 30세까지의 남녀 가운데 당원이 아닌 청년·학생·군인·직장인 등 모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항목 참조].

63) 오정삼, 1958, 『(수필) 바다에서 만난 청년』, 『조선문학』 1958년 8월호 참조.

64) 위의 글, 70쪽.

도 ‘사회주의화’에 복무할 것이 요구되었고, 문학의 임무는 국가의 이익을 무엇보다 존중하여 인민들을 교양하고 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모범적인 사회주의 노동계급의 전형을 창출하고, 아울러 정치적인 지도자인 당 간부들과 당원들,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서 있는 청년층과 민청원들을 형상화하는 데 한층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이었다.<sup>65)</sup> 그것은 지금까지 다분히 관료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던 당원과 민청원을 당의 요구에 철저히 하고 새것에 민감한 존재로 묘사하고,<sup>66)</sup> 사회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대상을 그 대적점에 서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역할을 제고해 당의 지도를 관철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sup>67)</sup>

한편, 1959년 4월 신문에서는 함경남도 도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수산 부문 청년 열성자들의 경험 교환 회의가 열렸다. 청년들은 다양한 어로 방법과 혁신의 경험을 교환하는 한편, 청년작업반, 청년직장, 민청호 등을 더 많이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sup>68)</sup> 이렇듯 김일성의 수산부분 지체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당의 집중적인 지도와 청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수산 부문도 지체현상을 극복하고 ‘천리마운동’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다.

---

65) 필자 미상, 1954, 「3개년 인민경제계획과 우리 문학의 전투적 과업」, 『조선문학』 1954년 7월호, 12~13쪽.

66) 큰 섬을 지나, 작은 섬 굽이/ 안즈랑 소나무를 우산처럼 펼쳐 쓴/ 선바위를 바빠 지나/ 항구로 항구로 들어오는 배/ 민청호다/ 민청호다/ 누군가 웨치는 반가운 소리에/ 일손 멈춘 순회의 가슴에선 파도가 출렁/ 바다를 휩쓸어 울부짓는 폭풍에도/ 어제 밤 돌아 오지 않은 단 한척/ 기다리던 배가/ 풍어기를 날리며 들어온다/ (중략) 오늘로 분기계획 남 먼저 끝낼/ 늙름한 청년들의 자랑을 가득 싣고/ 바쁘게 바쁘게/ 민청호가 들어온다(리용악, 1955, 「어선 민청호」, 『조선문학』 1955년 7월호, 90~91쪽).

67) ‘새세대공산주의자’들로서 청년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청년들의 대적점에 서 있는 인물로 형상화된 이들은 경험주의와 보수주의를 고수하는 노인들이었다(탁진, 1959, 「오체르크) 젊은 어로원의 생각」, 『조선문학』 1959년 9월호 참조).

68) 『로동신문』 1959년 4월 19일자.

## 2. '여성호'의 등장과 신어업문화의 조성

청년 중심의 세대교체와 아울러 '재래식 사업방법'과 '낡은 사상관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어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또 하나의 특단의 조치는 여성들의 어로활동 진출이었다. 그동안 어촌 여성들의 역할은 생선 뱌 따기, 통조림 만들기 등 주로 가공활동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수산 분야의 성역할 구분은 힘들고 고된 어로활동의 특성과 여성을 어로활동의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어민들의 속신에서 기인하였다. 여성들은 불길한 존재일 뿐 아니라 절대로 배에 탈 수 없는 존재였다.<sup>69)</sup>

전쟁 전 어민 가족의 노동은 남편과 아들이 뱌일을 하고 아내와 딸이 그물 짜기와 가공작업 등에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sup>70)</sup> 전쟁은 어촌 마을에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남성들의 전쟁 동원으로 인해 어업노동력이 급감하면서 어촌 마을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고, 이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로활동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sup>71)</sup> 금기의 대상이었던 여성이 뱌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생존의 현실 앞에서 금기의 영역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6.25전쟁 시기 함경북도 청진시와 라진군의 어민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산물 생산에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어촌 인민 전체가 총궐기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sup>72)</sup> 전쟁기 여성들은 부족한 남성 노동력을 대신하여 어로활동 영역으로 과감하게 진출하였다. 고기잡이, 편망작업

---

69) 본 논문 2장 1절 참조.

70) 윤두현, 1949, 「(현지보고) 바다로 가자」, 『문학예술』 1949년 5월호, 71쪽.

71) 전쟁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제 각 부문에 진출하여 생산에 앞장섬으로써 북한의 '국민'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한성훈, 2010, 『한국전쟁과 북한 국민형성-동원·학살·규율과 전쟁의 미시적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08~115쪽 참조.

72) 「함경북도 청진시, 라진군」, 1951년 6월 24일 지역조사.

뿐 아니라 야간 출어도 마다하지 않았다.<sup>73)</sup> 전쟁기의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활동 경험은 이후 여성들이 어로활동에 전면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김일성은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를 개척하는 사업을 전인민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하면서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들도 바다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4)</sup> 이 과정에서 6.25전쟁 시기 한편으로 적들과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로활동을 전개하였던 용맹한 여성들의 어로활동 경험이 복기되었다.

김일성의 교시에 대해 먼저 청년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여성들의 활동은 몇몇 미혼여성들의 개인적인 어로작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기혼여성의 양식작업과 <여성호><sup>75)</sup>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여성호> 운동은 여성들로만 배의 성원을 구성하고 바다에 나가서 독자적으로 어로활동을 벌이기 위한 대중적 운동이었다.<sup>76)</sup>

해주 수산사업소의 김복순을 비롯한 여성들이 1959년 4월 17일 <여성호>를 조직하고 첫 출어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청진, 나진, 김책, 서호, 용암포 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수산사업소에서 <여성호>가 조직되었다.<sup>77)</sup> 가공작업과 그물짜기 등 보조적인 존재였던 여성들이 어업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들의 이러한 행보는 처음에는 남성들과 노인들의 빈축을 샀지만, 여성들은 남성들과 노인들의 우려와 무시에도 불구하고 양식작업과 어로활동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60년 10월 6일 남포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던 김일성은 <여성호> 선원들을

---

73) 박근순, 앞의 책, 144쪽 참조

74) 김일성, 앞의 글.

75) <여성호>는 선장, 기관장부터 어로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성들로만 구성된 선박이다.

76) 박근순, 앞의 책, 323쪽.

77) 위의 책, 324쪽.

직접 만나 격려하였고, 여성들은 이후 자망작업과 낚시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잡은 어획물을 배위에서 직접 절이는 등 한층 적극적으로 어로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들의 증산성과는 신문과 소설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다.

춘자네 분조원들은 7월 한달 동안에 예견된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내고야 말았다. ‘치마두른 풋내기’라는 비웃음은 사라졌고, 그들의 자작민요의 한 구절을 따서 ‘번재골의 농사군’이란 말이 이웃조합을 거쳐 멀리 읍에까지 퍼져갔다(……) 춘자는 ‘번재골의 농사군’들이 조개잡이에서 사나운 풍파를 이겨낸 이야기며, 그리고 상고머리 령감이 자기들 앞에까지 찾아와서 “참 창피스럽수. 아주머니들이 배를 타는 세상인데 내라고 만날 이럴 수 있겠수.”하던 이야기, 며칠 전부터 먼 바다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남편 앞에 자랑하고 싶었다.<sup>78)</sup>

196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의 수산사업소에는 2~3개씩의 <여성호>가 조직되었고, 1960년대 말에는 그 수가 30여척에 달했다.<sup>79)</sup> 청년들이 노인들의 경험주의·보수주의와 싸우는 존재로 설정되었다면, 여성들은 남성들의 소극적이고 투기적인 경향을 견제하는 존재로 설정되었다. 생활력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당의 지도에 따라 증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여성들의 어로작풍과 성실한 생활태도는 남성들의 소극적인 사업태도와 한탕주의적이고 투기적인 어로작풍과 대비되었고, 어로활동을 자신들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던 남성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곧, <여성호> 어로공들은 남성 어로공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존재이자,<sup>80)</sup> 남성 어로공의 용기와 각성을 촉구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78) 위의 글, 103~104쪽, 106쪽.

79) 박근순, 앞의 책, 324쪽.

80) 전재경, 1957, 「(오체르크) 바다의 영웅 최원준」, 『조선문학』 1957년 7월호, 109쪽.

## 맺음말

일제강점기 개별적인 존재였던 어민은 해방 후 북한지역에 국영기업소 및 수산합작사가 조직되면서 점차 분조-작업반-기업소 및 합작사-인민위원회/국가라는 수직적인 연결망 속에서 국가에 직접적으로 포섭된 존재로 변모해갔다.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의 중요한 대상이었던 농업과 어업 분야는 1946~60년 획기적인 변화과정을 거쳤고, 농민과 어민들의 생활방식도 크게 변모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는 단지 경제적인 외형을 자본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로 바꾸는 과정일 뿐 아니라 반봉건적, 사회주의적인 인간형을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6.25전쟁 전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인상공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였고, 어업분야는 중소어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당시 어업분야에서 북한정권이 주력하였던 정책 방향은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어민들의 과학적 인식의 토대 아래 어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국영기업소, 수산합작사를 조직, 활성화하여 어민들이 협동화의 우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동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전쟁 이후의 남한과의 본격적인 체제경쟁 과정에서 북한은 일천한 생산력 수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북한은 생산력에 기반한 생산관계의 변화라는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고, 생산관계의 변화를 통해 생산력을 추동한다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길을 창안했다. 이러한 방법은 주체의 각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주체의 준비정도가 미약한 곳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공동노동의 전통이 강하고 일제시기 이래로 적색농민조합운동의 경험이 풍부한 농업분야에서는 농업협동화가 역동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공동노동과 적색조합운동의 경험이 전무한 어업분야에서는 지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생산조건의 미비라는 문제는 어느 곳이나 존재했지만, 농업 분야는 주체의 요구와 각성을 통해 생산력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주효했다면 어업분야는 주체의 각성을 통한 생산력 증진이라는 방안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어민들의 수산협동조합 가입이 1956년 93.7%에 달하는 등 형태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민들에게는 아직도 소극적인 사업태도와 보수주의와 경험주의, 투기적인 사업작풍이 만연하였고, 당의 지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북한정권은 문제의 원인을 어민들의 “뿌리 깊은 병집”과 정치사상적 각성의 부족으로 판단하고 전후복구사업 과정에서 당의 지도를 강화하였으나, 생산력 수준이 조금씩 증가하였을 뿐, 어민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북한정권은 1957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산업 분야를 지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적시하고,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도를 강화하였다. 그 방향은 느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존 어민을 변모시키는 방식을 포기하고, ‘새세대공산주의자’인 청년층의 전진배치를 통한 세대교체, 여성들의 투입을 통한 신어업문화를 조성하는 급속한 전환의 방식이었다.

전후복구사업 시기까지 어업분야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도방식이 조선로동당 및 근로단체를 통해 지도하고, 관철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사회주의 대고조를 표방한 이후부터 국가의 개입과 지도는 김일성이 직접

교시하고, ‘새세대공산주의자’로서 교육을 받은 청년층이 열성적으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과 강력한 지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업분야의 사회주의 협동화와 사회주의 인간형의 창출이 쉽게 달성될 수 없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동시에, 사회경제적인 조건보다 정치적 지도, 사상개조를 우선시하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어업분야에 관철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사료

『조선문학』 1949~1959, 문학예술출판사.

국토통일원 편, 1974, 『북한의 수산업분야 사업총화집(1949~1970)』

김일성, 1979~1981, 『김일성 저작집』 4·5·9·11, 조선로동당출판사.

고명인, 1959,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과 그의 물질기술적 토대』,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사회과학원, 『민속조사자료』, 미간행

조선중앙통신사 편, 1955, 『해방 10년 일지(1945~1955)』.

최 윤, 1961, 「바다의 젊은 갈매기들」, 『천리마 시대 사람들 (4)』, 조선로동당출판사, 민청출판사.

### 2. 논저

김성보, 2000,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북한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김성호, 1992, 『통합대비 농림수산부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북한의 농림수산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운근·서승진·김정봉, 1994, 『북한의 임업과 수산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은실, 2010, 「제주 해녀의 주체성과 제주 해녀 항일운동」, 『국가와 정치』 제16집.

김재웅, 2005, 「북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 현실』 제56호.

김재웅, 2014,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1945~1950)』, 고려

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정봉, 1993, 「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남북 수산협력 방안」, 『농촌경제』 제16권 4호.
- 박근순, 1991, 『조선수산업 2 : 현대편-1』, 공업종합출판사, 1991.
- 박찬식, 2004,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제19호, 2004.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 여박동, 1993, 「일제시대 어업조합의 성립과 변천-거문도 어업조합을 중심으로」, 『일본학연보』 제5집.
- 예대열, 2008, 「해방이후 북한의 노동조합 성격논쟁과 노동정책의 특질」, 『역사와 현실』 제70호.
- 이준식, 1993, 『농촌사회변동과 농민운동』, 민영사.
- 장혜련, 2011, 「해녀 항일운동」, 『제주여성사 2-일제강점기』, 제주발전연구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1989, 『조선로동당력사 2』, 돌베개.
- 조선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2006,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풍습 13-로동생활 2』, 사회과학출판사.
- 지수걸, 1993,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 최재성, 2012, 「1930~40년대 어업조합의 활동-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108호.
- 한성훈, 2010, 『한국전쟁과 북한 국민형성-동원·학살·규율과 전쟁의 미시적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Abstract

Influence of Socialism on Manners and Labor  
Customs among North Korean Fishermen

Chung Jin-A

Agriculture and Fisheries, important objects in People's democratic reform and socialist cooperation, underwent ground-breaking changes in 1946~1960, and the lifestyles of North Korean farmers and fishermen were also greatly changed. This was because the People's democratic reform and socialist cooperation were processes in which North Korea was not only changed into a People's democratic and socialist regime, but also engaged in the creation of anti-feudal and socialist humans.

Before the Korean War, North Korea took on the nationalization of important industries but recognized the existence of private commerce and industry to drive productivity, and fisheries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small-size fishing industries. The North Korean regime's policies for fisheries at that time were to make grounds for developing fishing industries under the fishermen's scientific recognition by eliminating superstitions in a way of anti-imperialist/ anti-feudal People's democratic reform, and to indirectly lead the fishermen to understand the superiority of national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be willing to enter the road to cooperative efforts with activation of national enterprises and fishing companies.

In the course of her post-war regime competition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was faced with the task of building socialism based on her poor productivity. North Korea did not follow the general path to socialism, that is, changes in production relations based on productivity, but came up with the way of ‘Our Way of Socialism,’ which would enhance productivity in terms of changes in production relations, and rapidly drove socialist cooperative efforts. This way might be effective when it was based on the subject’s awakening and requirement, but could never work well where the subject’s readiness was poor. Especially, in the field of fisheries, where experiences in group work and red cooperation movement were totally absent, the plan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in terms of the subject’s awakening was not fruitful but only showed retardation.

Thus, Kim Il-seong, driving the first 5-year plan in 1957, referred to fisheries as a representative field of retardation, and strengthened the nation’s direct intervention and guidance. This was oriented toward a shift in generations in terms of aggressive allocation of new-generation communists and a rapid transition for the creation of new fishing culture with women’s engagement.

This paradoxically tells us that the socialist cooperation and the creation of socialist humans could not be reached without the nation’s direct intervention and powerful guidance, and at the same time shows the way in which ‘Our Way of Socialism,’ which prioritized political leadership and ideological reform rather than socio-economic conditions, was accomplished in fisheries.

Keywords : North Korea, Socialism, fisheries, fishermen, national enterprises, fishing company, People’s democratic reform, socialist cooperation, Our Way of Socialism